'베린저 가문의 플래그십 아이콘 와인'

# 베린저 프라이빗 리저브 나파 밸리 샤르도네

Beringer Private Reserve Napa Valley Chardonnay

| | | | |
|---|---|---|---|
| 지역 | 미국 〉 캘리포니아 〉 나파 밸리 | | |
| 포도품종 | 샤르도네 100% | | |
| 알코올 | 14.5% | 용량 | 750ml |
| 시음 적정 온도 | 10-12℃ | | |
| 테이스팅 노트 |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며, 풍부한 바디감에 잘 균형잡힌 클래식 나파밸리 샤르도네의 모습을 보여준다. 허니서클, 레몬 콩피, 크림 브륄레, 파인애플과 망고, 탠저린류의 열대과일 노트가 복합적으로 표현된다. 가벼운 오크 터치를 통해 기분좋게 오래 이어지는 여운을 보여준다. | | |
| 페어링 TIP | 흰 육류/ 익힌 해산물/ 채소/ 부드러운 치즈 | | |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 제품설명

1876년 독일의 베린저 형제는 1876년 미국 나파 밸리가 독일의 라인강처럼 와인을 재배하는 최고의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베린저를 설립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플래그쉽 와인 '프라이빗 리저브'는 나파 밸리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표현력이 뛰어난 와인으로 명성이 높은 와인으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 모두 'Wine Spectator'에서 '올 해의 와인'으로 선정된 기록이 있다.

'프라이빗 리저브 샤르도네'는 나파밸리 내 엄선된 구획에서 소싱되는 각 샤르도네는 에이징 과정 내내 별도로 집중 케어된다. 포도를 압착한 후 천연의 풍부한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10개월 간 100%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발효된다. 매주 리(Lees)를 젓는 과정으로 토스트, 패스츄리 뉘앙스를 강화시키며 오크 터치를 통해 전체적인 균형감을 잡았다. 에이징 후 가장 표현력이 뛰어난 샤르도네 원액만이 최종 블랜딩에 사용되고 크림 브렐레, 감귤류 풍미가 겹겹히 레이어드된 훌륭한 맛을 보장한다.

## 수상내역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6점
2022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2점

## 와이너리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인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로 18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의 정착한 독일인 형제 제이콥 베린저(Jacob Beringer)와 프레드릭 베린저(Fredrick Beringer)에 의해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파 밸리 와인의 개척자로 알려진 베린저는 139년의 역사동안 총 8명의 수석 와인메이커를 두고 최고의 와인에 대한 자신감과 나파 와인에 대한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다. 캐주얼 와인부터 플래그십 명품 나파 부티끄 와인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 와이너리답게 금주령 시기에도 시기에도 미사주 전담 양조를 허가받았으며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 'Wine Spectator'가 선정한 '올해의 와인(Wine of the Year)로 선택된 유일한 와이너리다.

이 외에도 'Wine Enthusiast', 'Wine&Spirit'으로부터 '올해의 와이너리'에 총 11번 선정되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